

문혁수 “조 단위 매출 가속화… AI 반도체 기판 시장 선도”

〈LG이노텍 대표이사〉

LG이노텍 CES서 미래 전략 공개

문혁수 LG이노텍 대표이사가 차세대 고부가 반도체 기판 사업을 조 단위 규모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모바일 분야에서 쌓은 원천 기술을 바탕으로 모빌리티와 로봇 등 신사업 발굴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표는 지난 8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LVCC에서 열린 ‘CES 2025’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12월 경북 구미4공장에서 북미 빅테크 기업인 FC-BGA 양산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022년 FC-BGA 사업 진출 선언 이후 2년 만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FC-BGA는 전선 없이 AI 반도체 칩을 메인보드 기판에 촘촘하게 연결할 수 있는 차세대 기판이다. 반도체 기능이 많아질수록 기판도 커지는 상황에서, 집적도를 더 높일 수 있어 주목 받는 신기술이다.

후지카메라종합연구소에 따르면 글로벌 FC-BGA 시장 규모는 2022년 80억달러(11조6912억원)에서 2030년 164억 달러(23조9669억원)로 2배 넘게 커질 전망이다.



문혁수 LG이노텍 대표이사가 지난 8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LVCC에서 열린 ‘CES 2025’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담회를 갖고 있다. /LG이노텍

문혁수 대표는 “북미 빅테크 기업 외 여러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개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했다. 향후 지분 투자나 M&A 등 FC-BGA 관련 외부 협력 방안을 적극 모색하며, 시장 공략

“

FC-BGA 시장, 2030년 2배 성장 북미 빅테크 기업향 제품 공급 시작 미세회로 구현 유리기판 본격 시장 상 회로 왜곡 최소화 차세대 기술 주도

휴머노이드 리딩 기업들과 협력 강화 멕시코 공장 자동화로 美 시장 공략 중국 카메라 모듈 업계 추격 대응 베트남-국내 생산 이원화 경쟁력 ↑ 2030년 신규 사업 매출 8조 목표

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LG이노텍은 이번 CES 2025에서 처음 선보인 차량용 AP모듈과 함께 FC-BGA를 앞세워, 반도체용 부품 시장 키플레이어로서 조 단위 사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LG이노텍은 지난해 11월 공시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을 통해 신규 육성사업 매출을 2030년까지 8조원 이상으로 키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표는 미세 회로 구현에 유리한 ‘유리기판’에 대해서도 “이제 장비 투자를 한다”며 “올해 말부터는 유리 기판에 대해 본격 시장 상(시제품 양산)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리기판은 플라스틱 기반의 코어(중심부)를 글라스로 바꿔 회로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다.

문 대표는 “(유리기판은) 가야만 하는 방향이고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양산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단계”라며 “LG이노텍도 늦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LG이노텍은 모바일에서 쌓아온 카메라 모듈, 센싱, 제어, 기판 등의 원천 기술도 모빌리티, 로봇까지 다양한 산업군에 적용해가고 있다.

문 대표는 특히 생성형 AI 시대 급격한 성장세인 휴머노이드와 관련해 “LG이노텍은 글로벌 1위의 카메라 기술력을 바탕으로 휴머노이드 분야 주요 리

딩 기업들과 활발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CES 개막을 앞둔 지난 6일 기조연설 무대에 휴머노이드 로봇 14개와 함께 오른 것과 관련 문 대표는 “그때 무대에 등장한 휴머노이드 중 절반 이상의 기업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미국 통상 정책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략적 글로벌 생산지 운영과 공장 자동화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 멕시코 공장을 경쟁력 있게 만드는 게 지금 해야 할 일”이며 “투자비는 많이 들지만 공장 자동화를 공정에 빠르게 확장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카메라 모듈 업계의 추격에 대해서는 “생산을 이원화해 베트남 사업장은 기존 스마트폰용 레거시(Legacy) 카메라 모듈 제품의 생산 핵심 기지로 활용하고, 국내 사업장은 마더 팩토리로서 R&D를 비롯해 고부가 카메라 모듈 및 신규 애플리케이션용 광학 부품 생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고객가치 높여 유료방송 위기 극복”

LG헬로비전 ‘신년 타운홀 미팅’ “홍·미래 사업서 새 성장 동력 발굴 고객 경험 개선해 핵심 목표 매진”

LG헬로비전이 새해를 맞아 고객가치 경영에 기반한 차별화 전략으로 유료방송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12일 밝혔다.

송구영 LG헬로비전 대표(사진)는 지난 9일 서울 상암 본사에서 열린 ‘2025 신년 타운홀 미팅’에서 “질적 개



타운홀 미팅에는 경영진과 임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CEO 신년 인사 ▲2025년 전략방향 공유 ▲경영진 Q&A 등으로 새해 비전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행사는 현장 진행과 영

상 경영 효율화에 집중하고, 고객 경험 혁신과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 전반에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송구영 LG헬로비전 대표(사진)는

이날 행사에는 현장 진행과 영

상 생존계를 병행해 전사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며 의미를 더했다.

송 대표는 “지난해 어려운 사업 환경 속에서도 렌탈과 교육 등 신사업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낸 한 해였다”며 “서비스 전반에서 차별적 고객가치를 구현해 준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유료방송 시장의 경영환경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본과 내실에 충실하며 강한 실행력과

혁신적인 일하는 방식을 통해 차별화된 성장을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특히 그는 고객 중심의 조직 문화를 강조하며 “홍 및 미래 사업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핵심 목표에 매진하자”고 밝혔다. 또 “체계적인 과정 관리와 실행력을 통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과를 창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LG헬로비전은 2025년을 고객가치 경영에 기반한 도약의 해로 삼고, 질적 성장과 미래 사업 발굴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혜민 기자 hyem@

리멤버 경력직 스카웃 제안 누적 800만건 돌파

채용 플랫폼 리멤버가 자사 플랫폼을 통한 경력직 스카웃 제안이 800만건을 돌파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검색하고 입사를 제안할 수 있는 ‘인재 검색’ 서비스를 출시한 지 5년 만에 달성한 성과다.

리멤버의 인재 검색 서비스는 대기업 재직자 50만 명, 전문직 종사자 15만 명 등을 포함한 폭넓은 인재풀을 강점으로 한다. 경력직 핵심 인재를 찾으려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스카웃 제안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리멤버에 프로필을 등록한 회원이 받은 평균 스카웃 제안 수는 13건이다. 가장 많은 스카웃을 제안받은 회원은 총 1117건을 받았다.

리멤버 관계자는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시대에는 핵심 인재를 얼마나 빠르게 확보하느냐가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한다”며 “리멤버는 경력 채용 시장의 선두주자로서, 기업에는 적합한 인재를, 개인 회원에게는 만족스러운 스카웃 제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혜민 기자



채용 플랫폼 리멤버가 자사 플랫폼을 통한 경력직 스카웃 제안이 800만건을 돌파했다. /리멤버

틱톡, 19일 이후 퇴출 위기… 美 대법원, ‘안보 우려’에 금지법 지지

사업 매각 없으면 美 시장 퇴출 현실화 표현의 자유 논란에도 국가 안보 우선

틱톡이 오는 19일을 기점으로 미국에서 퇴출 당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대법원이 틱톡 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보다 국가 안보 위협에 더 큰 비중을 두면서다. 이에 따라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된다.

지난 10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 대법원은 틱톡 금지법이 수정 헌법 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틱톡 측 주장에 따라 구두변론을 진행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중국 정부가 틱톡을 이용자 정보를 수집하고 선전 매체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회의 우려를 법원이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엘레나 케이건 판사 역시 “틱톡 금지법은 외국과 협력하는 특정 기업을 겨냥한 조치로, 표현의 자유와 상충하지 않



지난해 3월 13일 미국의 틱톡 사용자들이 워싱턴 의사당 앞에서 틱톡 금지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시스

는다”고 설명했다.

◆**틱톡 금지법, 국가 안보 위협에 초점** 틱톡 금지법은 중국 소유의 틱톡이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중국 정부로 유출하거나, 플랫폼을 통해 여론을 조작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4월 미 의회는 틱톡의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270일 이내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

스 중단을 명령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틱톡은 오는 19일까지 미국 사업을 매각하거나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틱톡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삭제될 예정이다. 신규 다운로드도 차단되고, 기존 사용자도 기술 지원과 업데이트를 받을 수 없게 돼 서비스 품질 저하로 결국 시장에서 퇴출 당할 가능성이 크다.

틱톡은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프로젝트 텍사스’를 도입하며 15억 달러를 투자해 오라클 데이터센터와 협력하는 등 규제 완화 노력을 이어온 바 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지난해 초 틱톡이 여전히 비공식 경로를 통해 중국 본사와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프로젝트 텍사스만으로는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틱톡의 변호인 노엘 프란시스코는 심리에서 “틱톡 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며 헌법상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이 틱톡을 통해 정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플랫폼을 침묵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틱톡 탈출 러시… 바이트댄스, 美 사업 매각 가능성도**

틱톡 금지법이 시행되면 경제적·산업적 파장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틱톡의 미국 내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는 약 1억7000만 명에 이른다. 특히 틱톡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광고 및 콘텐츠 플랫폼으로 빠르게 자리 잡았기에 이를 기반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크리에이터도 급증한 상황이다.

일부 크리에이터들은 틱톡 금지 위기에 대비해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등 경쟁 플랫폼으로 이동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혜민 기자